여야 불자 의원들 "화합·상생 정치" 다짐

3월 4일 국회정각회 신춘법회
진우 스님 등 100여 명 동참
"정치인, '마음 안정'이 중요"
덕수 스님·능원 정사, 발전기금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이헌승 정각회장, 김영배 수석부회장이 단상에 올라 참석 대중들과 선명상 실참 시간을 가졌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연기의 지혜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발원문 중에서)

여야 불자 국회의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열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정각회(회장 이헌승)가 3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70(2026)년 신춘법회'를 봉행했다. 1983년 창립한 국회정각회는 40여 년간 여야를 초월해 신행 활동을 이어오며 상생 정치의 길을 모색해 왔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개회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헌승 회장은 "부처님께서는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일을 행하며, 화합하여 흩어질 때 나라가 번영한다고 일깨워 주셨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가의 쇠퇴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음을 모아 화쟁의 정치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드리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정치인에게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멘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올 수 없고, 좋은 생각도 떠오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을 줄여 나가면 감정이 순화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며 "그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나고 그에 따른 걸림 없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이헌승 정각회장, 김영배 수석부회장과 단상에 올라 참석 대중들과 선명상 실참 시간을 가졌다.

협치와 소통을 기원하는 국회의원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지금이 불교의 화쟁과 자타불이 정신을 되새길 때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오직 국민과 민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화합이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래 전부터 스님들은 '산감'이라는 소임을 두고 산을 지켜 왔고, 문화유산 보존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역할을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불교와의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교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챙긴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여야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며 "서로의 다름을 배제하지 않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국회정각회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끝으로 참석 대중은 이수진 국회정각회 간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자비의 마음으로 국민을 받들 것 △초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스스로 경책하며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진우 스님 "AI활용·선명상 보급에 역점"

3월 5일 직할교구종회서
"선명상 포교 관심" 당부
올해 사업예산 등 의결해

"종단은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수행과 전법의 본질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올해 종단은 'AI의 올바른 활용과 선명상 체계적 보급'에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시대에 맞는 종무행정과 전법 포교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차 직할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진우 스님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만 그 안에 자비와 지혜의 방향을 담는다면 전법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경전과 선어록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하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명상을 통한 대중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면서 "어렵고 관념적인 수행에 머무르기보다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종무평가 우수 사찰 표창과 모범종무원상을 시상했다.



종무평가 우수 사찰에는 흥국사 주지 정문 스님과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이 표창을 받았으며 유영란 용화사 재무팀장, 이상무 전등사 시설영선팀장은 모범종무원상을 받았다.

이날 직할교구종회에서는 △2025년도 직할교구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의 건 △2026년도 직할교구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직할교구 상임위원 선출의 건 △승려복지 교구분담금 배정의 건 등을 상정·논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할교구 예산은 분담금회계 예산 18억 8080만원, 경상회계 예산 4억 6765만원, 특별회계 예산 34억395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직할교구 상임위원으로는 △흥국사 주지 정문 스님 △문수사 주지 태성 스님 △정수사 주지 성원 스님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 △원통사 주지 석중 스님 △학도암 주지 현무 스님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 △정향사 주지 지홍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소림사 주지 정관 스님이 선출됐다.

신중일 기자

관음종,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 임명

종정 홍파 스님, 2월 25일 임명장 수여

관음종 총무원장에 현 직무대행 도각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관음종은 "종단 종헌·종법에 따라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가 2월 25일 도각 스님에게 총무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관음종 종헌·종법에는 종정이 총무원장을 임명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이에 따라 도각 스님은 지난 1월 건강상 이유로 사임한 법명 스님의 잔여임기인 8월까지 총무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임 총무원장 도각 스님은 1990년 낙산묘각사에서 홍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1992년 죽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낙산묘각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6안거를 성만했으며 2020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개산조 태허 조사 선암사 탑비조성 집행위원장, 관음종 총무부장 및 총무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와 진주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3월 31일 개원

제237회 임시회 5일 회기
9개월만에 기념관서 개회



불기 2569(2025)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237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한다. 지난해 6월 화재 발생 후 9개월 만에 기념관에서 종회가 열리게 된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37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4월 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안건 접수는 3월 24일, 종책질의는 3월 26일에 마감된다.

당초 중앙종회는 3월 24일 임시회 개회를 검토했으나 국제회의장 공사 마무리와 사용 승인 절차 문제로 일정을 연기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국제회의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화재 사고 이후 사용을 위해 사전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다"며 "집기 설치와 절차 등을 고려하면 31일 개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상소 첫 심리

재심호계원 3월 18일 속행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상소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렸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정묵 스님)은 3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8차 심판부를 열고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상소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개시했다.

이날 심리는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증거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호계원은 오는 3월 18일 심리를 속행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